



재미한국학교협의회 | **NAKS**
The National Association for Korean Schools

4109 Tall Oak Co., Lambertville, MI 48144 • 734.856.1455 • www.naks.org

재단법인

김 구 재 단

제 3 회

『백범일지』

독서감상문 쓰기대회 응모작품



학생 성명	한글	김정완	영어	Jungwan Kim				
지도교사/이메일	성명	김용환	이메일	yonghwankim@gmail.com				
소속 학교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한국/한글학교		
소속 협의회	뉴잉글랜드					지역협의회		
학년/생년월일	10	학년	1997	년	5	월	16	일
제목	백범 김구 선생님							

응모 번호

(이 난은 기입하지 마세요)

줄 아래 화살표에서부터 쓰기(타이핑) 시작하십시오.

⇒얼마 전, 나는 미국 아이들이 한국과 일본 사이에 대한 역사를 하나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학교의 역사 시간이었다. 선생님은 우리를 작은 그룹으로 나눈 뒤, 우리들 보고 식민지의 대한 어려운 질문을 가지고 토론 하라고 말씀하셨다. 그 질문 중의 하나는,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로 쳐 들어가서 그 나라를 식민지로 만들어도 괜찮은 일 인지 였다. 내가 말을 꺼내려고 하는데, 백인 남자 아이가 먼저 답을 했다. “식민지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이익을 보니 괜찮은 것 같다. 또, 식민지도 신기술이나 새로운 문화를 알게 되니 식민지에게도 좋다고 믿는다.” 라고 의견을 말했다. 그 때, 나는 한국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이 답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 일본은 우리 나라를 식민지로 가지고 있을 때, 우리 나라 사람들의 이름을 바꾸게 했고, 한국 사람들의 몸을 가지고 상상도 못하게 끔직한 실험도 했고, 나같은 어린 나이의 여자들을 데리고 위안부로 사용을 하기도 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것은 너무 뻔하지 않나?

그 날, 나는 그 아이한테 꼭 백범 김구 선생님의 이야기를 해 주고 싶었다. 일본한테서 독립운동을 하시며 목숨을 바치신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아이의 생각이 바뀔 것 이라고 생각했다. 나도 한국학교 에서 “김구: 아름다운 나라를 꿈꾸다”를 읽지 않았다면, 그 아이처럼 어리석은 말들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 아이가 한 말을 듣고 난 뒤, 집에 와서 책을 한 번 더 읽기 시작했다.

김구는 가난한 가족에서 태어나, 열심히 공부해서 양반이 되는 것이 꿈이었는데, 실패 하셨다. 그 다음, 열 아홉살 때, 동학에 들어가서 동학군의 높은 사람이 되셨는데, 배신자 때문에 동학군의 사람들은 흩어졌다. 그 다음, 일본이 명성황후를 살해했다. 김구는 스치다라는 한국인 복장으로 다니는 일본인을 만나고, 명성황후를 살해한 사람 중 한 명이라고 생각하고 스치다를 죽이게 되었다.

나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김구가 스무살이었다는 것이 놀라웠다. 나도 얼마 남지 않으면 스무살이 될 텐데, 네가 무슨 일을 하고 있을건지와 너무 비교가 됐다. 나는 직장을 구하려고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텐데, 그 나이에 김구는 벌써 나라를 위해 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나도 무엇이랴도 그 나이에 한국을 돕는 일을 찾고 싶어졌다. 스치다를 죽이면, 김구가 감옥에 가서 많은 고문을 당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했다는 것은 어릴적 부터의 엄청난 용감함을 보여 주었다. 감옥에 가서도 견디지 못할 고문의 고통을 받으셨지만, 당당하게, “이놈! 내가 죽으면 귀신이 되어서, 살면 몸으로 우리나라의 치욕을 씻을 것이다!” (38 쪽) 라고 외쳤다. 그 말을 들은 한국사람들은 감동 받아서 김구를 응원하러도 많이 왔다. 살아가는 환경이 너무 어려워도, 김구는 힘을 내서 다른 사람들을 이끌는 힘을 이용하셨다. 내가 어려운 상황

에 있을때 마다 김구의 감옥 시절을 생각하면, 꼭 힘을 낼 수 있다. 또, 감옥에서 김구는 선생님이 되면서, 사람들에게 글을 가르쳐 주셨다. 그 행동에서도 나는 교훈을 얻었다. 항상 나보다 못 사는 사람을 도와야 하고, 사람들을 교육 시키는 일도 중요하다.

그 범죄 때문에 감옥 생활을 하고,나중에 탈출해서 절에서 스님이 되겠다는 결심도 했었다 하지만 결국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백성들을 깨우쳐야 한다는 생각에 국민 계몽운동을 위해서 학교를 차리셨다. “깨어 있는 사람이 많아야 굳세고 아름다운 나라가 된다. 깨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배움이 있어야 한다.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배워야 한다” (53쪽) 라고 말씀을 하셨다. 김구는 신민회의 한 명이 되어 활동을 하다가 또 감옥에 가게 되었다. 삼년 후, 3.1 운동 뒤, 김구는 상하이로 가서서 임시정부의 경무국장이 되셨다.

김구 선생님은 공부의 힘을 강조 하셨다. 나라의 사람들이 많은 것들에 대해서 모르면, 나라가 발전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읽은 후, 나는 더욱 더 열심히 공부하기로 다짐하였고, 나중에 봉사활동으로 가난한 아이들의 선생님을 해 보고 싶다고 마음을 먹었다. 그리고 김구가 임시정부에 들어갈때도, “저는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 정부의 문지기가 되기를 꿈꿨습니다. 제가 임시정부의 문을 지킬 수 있게 해 주십시오” (75쪽) 말하셨다. 나는 이 말이 너무 놀라웠다. 일본인들과 싸운다는 마음에, 스치다를 죽이고, 그 다음에 독립운동 관련되어 보통 인생은 커녕 가목의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던 분이 높은 자리를 찾지 않는다는게 이상했다. 하지만, 이런 말을 김구의 겸손함을 보여 줬다. 무엇이든지 우리 나라를 돕는 일이면 중요한 일이라는 태도를 가지셨다. 요즘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모두 무슨 일이든지 제일 높은 일을 하고, 제일 잘 하고 싶어 하지만, 김구 선생님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더 많았으면 이 세상이 더 좋아질 것 같다. 서로 더 높은데 가는 대신에, 작은 일에도 행복을 찾는게 중요한 것 같다.

이 때, 윤봉길과 이봉창이라는 분들은 김구와 함께 큰일을 계획해서, 목숨을 희생하면서 폭탄을 일본인들에게 던졌다. 만약에 나라면 가족을 떠나는 생각이 너무 무섭고, 죽음의 생각이 너무 두려워서 하지 못 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분들은 우리나라의 독립을 제일 먼저 생각 하면서 목숨을 걸고 폭탄을 던졌다. 한국의 사람들이 이런 깊은 나라사랑을 하니, 나도 한국인이라는 것이 너무 기쁘고,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또 들기 시작한다.

김구 선생님은 그 다음 광복군을 세우셨다. 싸울 준비가 되 있었는데, 일본이 전쟁을 지는 바람에 갑자기 미국과 소련이 한국에 들어가 나라를 반으로 잘라 버리고, 임시정부는 인정해 주지 않았다. 김구 선생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통일운동을 하셨다. 너무나도 허무하게, 한국인이 쓴 총에 맞아서 돌아가셨다.

나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너무 억울했다. 지금까지 김구 선생님의 행동들은 다

무엇을 위한 일이었을까? 결국은 일본을 이길 자신이 있을때, 계획들이 다 망가져 버리며, 한국은 또 다시 다른 나라의 영향을 받으면서 반으로 갈라졌다. 미국에 살면, 미국과 소련의 작전 때문에 한국이 남한과 북한으로 갈린 이유를 알기 어렵다. 미국 아이들은 나한테 어린 나이 부터, “너는 남쪽에서 왔니, 북쪽에서 왔니?” 라고 물었다. 남쪽이라고 답하니, “다행이다. 북한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상한 곳 같아” 라는 대답을 많이 들었다. 또, 나의 제일 친한 친구는, “나의 할아버지는 한국에 가서 전쟁에 싸우셨어. 미국이 도와줘서 너희 나라는 행복하지 않니?” 라고 물었다. 물론, 미군들이 싸우면서 목숨을 잃었긴 하지만, 한국의 전쟁은 아주 슬픈 일이었다. 한 민족이 싸우게 된 이유는 미국과 소련이 나라를 찢어 냈기 때문이다. 이런 일이 없고, 김구의 임시정부가 한국을 다스렸다면, 지금 남-북 전쟁은 없을 것이고, 북한의 뉴클리어 폭탄 문제도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나한테는 이 일이 너무 안타깝고, 미국 아이들이 이 역사에 대해서 더 알았으면 좋겠다.

김구 선생님은 너무 불행하게 사시다가 너무 불행하게 돌아가셨다. 나라의 독립이 너무 중요해서, 가족도 못 보면서 사시다가, 자기의 아내, 아버지, 어머니와 심지어 아들까지를 땅에 묻었다. 또, 인생동안 많은 시절은 고문 받다고 굶주린 생활도 많이 하며 살았다. 어떤 사람들이 보면, 김구는 목숨을 거는 일에 실패 하셨다. 지금까지도, 한국은 남과 북쪽으로 나뉘어 있다. 하지만, 김구의 큰 성공은, 나같은 한국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나라사랑을 심어 주셨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김구처럼 나라사랑을 할 수 있을까 고민했다. 지금 당장 학교를 그만 두고 한국으로 이사 가서 통일 운동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니,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할 것이다. 학교에서 만나는 미국 친구들한테는,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말을 해 줄 것이다. 김구 선생님도 공부와 지식의 힘을 인정하셨다. 그런 미국 아이들이 한국의 상황을 알면, 나중에 통일에 대한 일에 마음이 바뀔 수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 열심이 한국학교에 다니면서 한국말과 문화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 나라사랑을 하려면, 기초적으로 한국 문화를 잘 알아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실력을 쌓아서, 어른이 되면 한국으로 돌아가서 통일에 관련된 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 미국에 살면서 미국인들한테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는 일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한국에 미국 영향이 큰데, 미국사람들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 무엇이든지 미래에는 바뀔 수 있다고 본다. 한국 아이들이 다 조금씩 김구 선생님의 인생을 따라서 우리 나라를 돕는 일을 하면, 우리 나라는 큰 발전을 볼 수 있다고 믿는다.